경전 중의 으뜸 법화경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㊱ 대승종극지설(大乘終極之說)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체중생희견보살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약왕보살이었느니라. 이처럼 몸을 버려서 보시한 것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나유타 수 시간 동안이었느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만약 발심하여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얻으려는 사람은 능히 한 손가락이나 한 발가락을 태워서 부처님 탑에 공양하면, 나라나 도시나 처자나 삼천대천세계의 토지와 산림과 하천, 온갖 진기한 보물로 공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七寶)로 부처님과 대보살과 벽지불·아라한들에게 공양한다 하여도 그의 얻는 공덕은 〈법화경〉을 받아 지녀 사구게송(四句偈頌) 하나를 지니는 것만 못하니 〈법화경〉을 받아 지니는 공덕이 가장 크니라. 수왕화보살이여, 마치 모든 시내나 개천, 강 등의 물 가운데서 바닷물이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도 모든 여래가 설하신 경 가운데서 가장 깊고 가장 크니라.

또 토산(土山), 흑산(黑山), 소철위산(小鐵圍山), 대철위산(大鐵圍山)과 십보산(十寶山) 등 여러 산 중에 수미산이 단연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이 모든 경전 가운데서 으뜸이니라. 또 뭇 별 가운데 달이 가장 으뜸이듯이 이 〈법화경〉이 천만억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밝게 비추느니라.

또 해가 모든 어둠을 몰아내듯이 이 경도 능히 온갖 악의 어둠을 깨뜨리느니라. 또 여러 왕 가운데서 전륜성왕이 가장 으뜸이듯이 이 경이 여러 경전 가운데 가장 존귀하니라. 또 제석천왕이 삼십삼천 가운데 왕이듯이 이 경도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는 경이니라. 또 대범천왕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이듯이 이 경도 모든 현인·성인·학·무학과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들의 아버지이니라. 또 모든 범부들 가운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벽지불이 으뜸이듯이 이 경도 모든 여래가 설하고, 또는 보살이나 성문이 설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또 이 경전을 능히 받아 지니는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 가운데 으뜸이 되느니라. 모든 성문과 벽지불 가운데서 보살이 단연 으뜸 되나니, 이 경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경법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느니라. 부처님이 모든 법의 왕이듯이 이 경도 또한 그러하여 모든 경 가운데 왕이 되느니라."

이 장(章)에 와서는 소신공양 찬탄에 이어 부처님이 수왕화보살에게 〈법화경〉의 공덕과 그 우수성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하고 있다. 경전 속의 본문에서 그 경전의 탁월한 가치성을 이렇게 강조하며 설해 놓은 예가 〈법화경〉을 빼고는 없다. 온갖 것을 비유하는 예를 들었지만, 결론은 〈법화경〉이 '경전 중의 왕'이라고 하였다. 〈법화경〉을 대승종극지설(大乘終極之說)이라 한다. 대승의 법문을 마지막으로 모두 설해 마친 지극한 법문이라는 말이다. 보통 삼승(三乘)을 회통하여 일승(一乘)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뜻에서 회삼귀일(會三歸一)로 〈법화경〉의 성격을 규정하나 법화사상 완성자 천태 지의(天台智顗, 538~597)가 말한 대로 〈열반경〉과 더불어 부처님 일대시교 중 최후의 설법이다. 그러므로 종극(終極)의 설법이 되어 〈법화경〉 이상의 설법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법화경〉을 근본으로 한 천태종의 지의나 〈화엄경〉을 근본으로 한 화엄종의 현수(賢首)는 다 같이 일대시교를 오시(五時)로 교상판석을 하였다. 이에 의하면 〈법화경〉은 대승교법의 종착역인 종교(終敎)이다.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원교(圓敎)라 하여 최상의 설법으로 여기고, 천태종에서는 〈법화경〉을 일승교(一乘敎)라 하여 최상의 설법으로 여긴다. 보통 경전을 소승경전과 대승경전으로 나누지만 현수는 대승경전도 시교(始敎), 종교(終敎), 돈교(頓敎), 원교(圓敎)로 나눴고, 천태는 일대시교 전체를 경명으로 전후의 설시를 구분해 49년 설을 내세워 아함 12년, 방등 8년, 반야 21년, 법화 8년으로 햇수를 밝혀 판석(判釋)하기도 했다. 〈화엄경〉은 최초의 설법이라 하여 〈화엄경〉을 설한 때를 〈아함경〉 설한 때에 넣었다. 결국 〈법화경〉 중심으로 보면 소승(小乘), 대승(大乘), 그리고 일승(一乘)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중국적 계율의 출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㊱ 청규(淸規)

중국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대체로 서력(西曆) 기원을 전후한 무렵으로 보고 있다. 불교는 중국의 사상이나 문화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점차 중국인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변하면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계율도 마찬가지여서 중국이라는 새로운 문화 환경에 완벽히 적응한 '중국적인 계율'이 출현하게 된다. 특히 출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율(律)은 중국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차츰 변하게 된다.

중국의 출가 교단에서는 일찍부터 생활규범으로서 일정한 형태를 정비했던 승제(僧制)가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도안(道安)의 '승니궤범불법헌장삼례(僧尼軌範佛法憲章三例)'를 꼽을 수 있다. 다수의 수행자가 공동생활을 하거나 새로 출가한 이가 공동생활에 합류할 적에 모두가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있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안의 승제만으로는 변화하는 시대나 사회환경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규범집이 등장하게 된다.

가장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규범집으로 '청규(淸規)'를 꼽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선종 교단인 총림(叢林)에서 지켜야 할 생활규범이 망라되어 있다. 최초의 청규는 당나라 중기에 백장산(百丈山)의 회해(懷海) 선사가 제정한 〈백장청규(百丈淸規)〉이지만, 현존하지 않는다. 이 청규는 고청규(古淸規)라고도 불리는데, 814년에 제정되었다고 한다. 현존하는 〈백장청규〉는 원대(元代)에 성립한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인데, 당대(唐代)의 〈백장청규〉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청규는 1103년에 자각(自覺) 종색(宗賾) 선사가 지은 〈선원청규(禪苑淸規)〉이다. 그는 회해 선사의 〈백장청규〉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5년 동안 각지의 총림을 방문해서 여러 생활규범을 살펴본 후에 그것을 총망라한 청규를 찬술했다.

종색 선사가 〈선원청규〉를 찬술했던 북송(北宋) 시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으며, 당시 불교의 주류였던 선종 교단의 규모는 제법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총림의 운영도 기구의 설치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총림의 운영은 주지(住持)를 중심으로 하여 각기 역할을 달리하는 동반(東班)과 서반(西班)의 직역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동반은 사원의 경영을 주로 담당했으며, 사지사(四知事)로 불리는 감원(監院), 유나(維那), 전좌(典座), 직세(直歲) 등으로 구성되었다. 서반은 주로 선승의 수행과 교육을 담당했으며, 육두수(六頭首)로 불리는 수좌(首座), 서기(書記), 장주(藏主), 지객(知客), 욕주(浴主), 고두(庫頭)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외에 장원(莊園)의 관리와 수세를 담당하는 장주(莊主), 시장과 거리에서 권화(勸化)하여 단월(檀越)을 획득하는 화주(化主)도 있었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이부키 아츠시(伊吹敦)는 장주와 화주와 같은 직역들이 나타나는 것은 선종 사원의 경제가 자급자족적인 것에서 장원 경영과 단월에 의존하는 것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한다. 이런 변화는 자급자족만으로는 총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났을 것이다.

총림의 기구가 다양한 직역들에 의해 고정됨에 따라 수행생활도 정비되어갔다. 5일마다 상당(上堂)이 행해지고, 3과 8로 끝나는 날(3, 8, 13, 18, 23, 28일)에는 만참(晩參)이 행해지는 등 매일매일의 생활도 정형화되어 갔다. 축성(祝聖)과 삼불기(三佛忌)인 불강탄회(佛降誕會), 불성도회(佛成道會), 불열반회(佛涅槃會) 등의 연중행사도 점차 고정화되어 갔고, 각종 의식과 의례도 자세히 규정되었다. 이에 따라 승려들의 일상생활도 차츰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⑫ 끝없이 이어지는 업보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업보'

잘못된 세 가지 세계관

불자 여러분! 오늘날뿐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도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에 세 가지 잘못된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모두 전생에 지은 업에 의하여 결정되어 졌다고 판단하는 숙명론(宿命論)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 이 세상은 모두 하느님이나 자재천과 같은 절대적 창조신에 의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운명의 결정권은 창조신이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존우론(尊佑論)적 견해 즉 천지 창조론적 견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업에(業)에 대한 인과(因果)를 믿지 않고, 모든 것은 그저 우연하게 이루진다고 판단하는 무인(無因)·무연(無緣)의 우연론적 견해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견해들은 모두가 잘못된 견해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그릇된 견해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르시길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숙명의 소작이며, 존우의 화작이며, 우연히 이루어진다면 우리 모두가 살생자가 되고, 주지 않는 것을 훔치며[盜], 삿된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며, 삿된 견해를 가진 사람이 되는 어떠한 일을 해도 괜찮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체는 다 숙명의 소작이며, 존우의 화작이며, 우연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처럼 세 가지 잘못된 견해들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고, 연기법의 인과(因果)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사견들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과법칙을 말씀하셨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칙이란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인데, '이 세상에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중아함경〉 제3권 '업상응품(業相應品)'에서 "지은 업은 반드시 그 과보를 받는다.(若有故作業 我說彼必受其報)"고 설한 것처럼 우리가 지은 선악의 업은 반드시 성숙하게 되어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그 과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밭에 오곡의 씨앗을 뿌려 놓으면 그 오곡의 씨앗은 그 종자에 따라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업보는 한 치의 오차가 없다

불자 여러분! 업보(業報)에는 한 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선인선과(善人善果) 악인악과(惡人惡果)'의 인과응보(因果應報)라고 합니다.

〈증일아함경〉 권 제51 '대애도반열반분품'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개 사람은 그 행을 닦을 때 악도 행하고 또 선도 행하지만 그들은 제각기 그 과보를 받나니 그 행은 끝내 멸하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만일 그 행을 찾아보면 그 과보를 받는 이유를 알 수 있나니, 선을 행하면 선의 과보를 받고 악을 지으면 악의 과보를 받는다.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하거나 그 사람이 익힌 대로 따르나니 마치 오곡(五穀)의 종자를 심어 제각기 그 열매 거두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업의 과보는 엄청난 것이어서 한 치의 오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과율(因果律)이라고 합니다.

〈법구경〉에서는 "하늘 위도 아니요, 바다 속도 아니며, 산속의 동굴도 아니요, 그 어느 곳도 아니다. 악행의 결과를 피할 곳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고 설한 것처럼, 한 번 지은 업은 끝내 멸하지 않으며 그 과보는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업은 많이 지을수록 삶이 구속되고 괴로워지며, 선업은 쌓을수록 삶이 자유로우며 행복해집니다.

결국 자신을 구속하는 것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문의 010-3267-1263
www.garden-heating.com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침향 향기나는 초 침향초
- 대중이 모일때 가장 적합한 초 -
침향은 예로부터 향료로 피워 극히 귀한 기운을 갖는다고 전해집니다.
침향을 피워 향기를 맡게 되면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법당, 집, 사무실, 기도처 등 다양한 곳에서 침향의 향기와 함께하세요.

식물성 침향초 육각초 연꽃칠성촛대

침향 밀납PC컵초 크리스탈받침(별도판매) 연꽃 크리스탈 촛대 연꽃촛대
양초 보시 대행
해광산업 031-333-0242 · 010-5848-0189